



배우 주현(왼쪽부터), 고현정, 고두심, 윤여정, 김혜자, 김영옥, 나문희, 신구가 tvN 10주년 특별기획 '디어 마이 프렌즈'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수나, “갑자기 쓰러진 뒤 의식 못 찾아”

배우 이수나(69)가 갑자기 쓰러진 뒤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7일 방송된 KBS 2TV 연예 정보 프로그램 ‘연예가중계’는 이수나가 지난 4일 오후 갑자기 쓰러져 서울의 한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보도했다. 이수나 딸은 제작진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져서 저희도 너무 놀랐다”면서 “중환자실에 있고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병원에서 혈액 순환 문제를 지적받았으며 여러 종류의 약을 복용 중이라고 밝힌 이수나의 과거 인터뷰 영상을 내보내면서 그가 이번에도 고열압 때문에 쓰러졌다고 설명했다. 고려대에서 법학을 전공한 이수나는 1980년 MBC 탤런트 특채로 데뷔했다. 그는 MBC TV ‘전원일기’ 양춘리 부녀회장, 시트콤 ‘안녕, 프란체스카’ 이수나, ‘거침없이 하이킥’ 개성택 등을 연기하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연합뉴스



“노년의 치열함 담고 싶었어요”

‘디어 마이 프렌즈’ 신구·김혜자·주현 등 시니어벤처스 총출동
노희경 작가 “우상들과 함께 일해 너무 행복해”… 13일 첫 방영

갈수록 삶이 고달파지면서 우리 사회에서도 청년과 노인 갈등이 점차 도드라지고 있다. 청년은 노인이 너무 많은 몫을 챙긴다고 비판하며 ‘꼰대’라고 고깝지 않게 본다. 노인은 청년이 자신의 희생을 꺾어 내리고 충고를 귀담아듣지 않는다면 괴롭게 한다. 서로 적대시하는 청년과 노인이 ““친애하는 친구”가 되길 바라는 마음”(노희경 작가)을 담은 드라마가 tvN ‘디어 마이 프렌즈’다. 첫 방송(13일 오후 8시30분)을 앞두고 ‘디어 마이 프렌즈’ 제작발표회가 열렸다. 노희경 작가는 그간 드라마에서 강조했던 ‘상처의 치유’보다 ‘관찰’에 방점을 찍었다. 신구와 김영옥, 김혜자, 나문희, 주현, 윤여정, 박원숙, 고두심 등 내로라하는 노배우가 ‘디어 마이 프렌즈’에서 서로 물고 뜯고 사랑하는 이야기를 펼친다. 드라마와 영화에서 누군가의 어머니 아버지,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맡았던 이들이지만, 이번에는 이야기의 중심에 선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고두심의 딸로 등장하는 고현정이 사실상 유일한 젊은 이다. 노 작가가 어른들의 이야기에 끌린 이유는 무엇일까. “(젊은) 우리가 치열하게 산다고 하는 건 치열한

런 날이 있었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작품을 만나서 더 뭐라고 할 말이 없을 정도로 행복하다”며 박찬 마음을 표현했다. 65세 싱글녀 오충남을 맡은 윤여정은 “김혜자 언니가 지난번에 제 손을 꼭 잡고 ‘이 작가가 우리를 죽기 전에 만나게 해주려고 이 작품을 썼다’라고 말해서 울컥했다”면서 “노희경이 아니면 이런 작품을 우리에게 선사하겠느냐”고 말했다. “40년 전에는 ‘여고동창’이라든지 같은 드라마에 출연했던 사이예요. 그러다 헤어져서 각자 엄마 역할을 하다가 이렇게 뭉치게 되니 울컥하기도 하고, 같이 하는 게 좋아요. 몇십년 만에 헤어져서 만난 우리가 너무 우습기도 하고요.”(윤여정) 이들로부터 “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아이”라는 평가를 받은 고현정은 ““꼰대”라고 생각하고 어른들에게 다가가지 않으면 젊은이들에게 오히려 더 손해라는 생각이 작품을 찍으면서 들고 있다”고 말했다. “배우라면 누구나 한번은 정말 노희경 작가와 함께 일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으니까요. 그렇게 원하던 노희경 작가의 작품에 출연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에요. 의미 있고 뜻깊은 작품이라서 촬영하면서 힘든 것도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이런 날이 또 올 수 있을까’하는 생각도 해요. 제게는 참 행복한 작품이에요.” 그는 어르신들로 가득 찬 드라마에서 사실상 유일한 젊은이인 박찬을 맡았다. /연합뉴스

제시카, 5월 화려하게 솔로 컴백

타이틀 곡 ‘플라이’…작사·작곡 참여

소녀시대 출신 제시카가 이달 솔로 활동으로 본격적인 홀로서기에 나선다. 소속사 코리얼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제시카는 이달 자작곡 ‘플라이’(Fly)가 담긴 솔로 앨범을 발표한다. 2014년 9월 소녀시대를 탈퇴한 제시카의 솔로 활동은 오는 11일 첫 솔로 앨범을 내는 소녀시대의 티파니와 시기적으로 비슷해 한술밥을 먹던 둘의 경쟁에 관심이 모아진다. 앨범에는 제시카가 작사·작곡한 ‘플라이’를 비롯해 ‘빅 미니 월드’(Big Mini World), ‘폴링 크레이지 인 러브’(Falling Crazy In Love) 등이 수록됐다. 소속사는 “타이틀곡 뿐만 아니라 새앨범 다수 곡에 제시카가 작사, 작곡자로 참여해 음악적인 역량을 선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플라이’에는 미국 데프잼 소속 배틀라 래퍼 패블러스가 피쳐링으로 참여해 눈길을 끈다. 또 프로듀싱에는 비온세, 디디 등의 프로듀서로 그래미상 수상 경력이 있는 프로듀서인 케이맥이 참여했다. 제시카는 지난달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신곡 뮤직비디오 촬영을 마쳤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이욱정 PD의 자연을 담은 한끼 10 일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좋은 사람)	30 KBC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0 닥터365 30 아침연속극 (내 사위의 여자)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내 마음의 꽃비) 40 여유 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KBS 명품역사관 (광개토대왕) 50 안녕 우리말(재)	00 이웃집 찰스(재)	0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00 닥터365 05 세상발전 유레카
12	00 KBS 뉴스 12	00 월화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재)	00 MBC 정오 뉴스 20 통일 전망대	00 SBS 12 뉴스 50 닥터 365 55 열린공간 토크 talk(재)
1	00 시청자클럽 우리 사는 세상 05 네트워크 특선 (방송의 전설)(재) 55 별별가족(재)		10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재)	55 TV블로그 꿈지락
2	00 연중기획-빛고을행복아카데미	00 KBS 뉴스타임 10 특징다큐 (우리가 들어줄게)	00 키즈 사이언스 5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재)
3	00 콘서트 필 50 안녕 우리말 55 튜닝생활채널	00 자동공부책상 위키2 30 TV유치원	00 MBC 뉴스 10 독?특! 키즈스쿨 55 타스의 풀이풀이 사자서어	00 3시 뉴스브리핑
4	3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25 MBC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재)	30 꾸러기 탐구생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동네스타 전국방송내보내기(재)	00 MBC이브닝 뉴스	00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특독 30 SBS 뉴스파라이드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 사는 세상	0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 15 고향전문록 남도에 살아리었다
7	00 KBS 뉴스7 30 우리말 겨루기	50 일일드라마 (천상의 약속)	15 일일연속극 (최고의 연인)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꿈지락 20 일일드라마 (마녀의 성)
8	25 별난 가족	30 글로벌 24 55 수상한 휴가	5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가요무대 가정의 달 기획 가요무대	00 월화 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	00 월화 특별기획 (문스타)	00 월화드라마 (대박)
11	30 KBS 뉴스 4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0 2016 가정의 달 특집 휴먼다큐 사랑 2부 (로비미텐더)	10 동상이몽 관참아 관참아
12	20 해외결정드라마 (닥터 후 시즌8)	35 배바 K리그	20 MBC 뉴스24 40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55 스포츠 특선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5:30 건강한 아침 05:40 성공시대 가는 한국인 (LCD 이출질 제로 프로젝트 LCD장비 제조 황순철)	09:00 캐니멀 09:30 원더볼트 09:40 라이브 토크 부모 (말이 안통해 힘든 아이들)
06:10 EBS 특별기획 통찰 (고전, 인간을 말한다 오디세이아 1편)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1:00 세계테마기행(재) (페르시아 문명을 걷다, 이란)
07:00 정글에서 살아남기 (마루의 어드벤처)	11:40 한국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시대공감 (우리)
07:30 로보가 놀리 07:45 뽀뽀뽀 뽀로로 08:00 뽀뽀뽀 유치원 1~3 08:45 코코코 디코	12:50 EBS 스페셜 프로젝트 13:40 즐거운 수학 EBS MATH 13:50 원더볼트(재) 14:00 미술탐험대
	14:30 부릉부릉 부르미즈 15:00 모피와 친구들 15:15 세계사 시간여행 15:30 꼬마기사 마이크 (순수 속에 사는 사람들, 풍족)
	16:00 캐니멀(재) 16:30 코코코 디코 16:45 뽀뽀뽀 유치원 1~3(재) 17:30 뽀뽀뽀 뽀로로(재) 17:45 로보가 놀리 18:00 뽀뽀뽀 뽀로로! 보니하니!~4 19:00 정글에서 살아남기 (마루의 어드벤처)(재) 19:30 EBS 뉴스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20:40 다크 오늘 20:50 세계테마기행 (순수의 대지, 베트남1부 구름 속에 사는 사람들, 풍족) 21:30 한국기행 (명당보고서, 삼승지) 21:50 EBS 다크 프라임 (한반도 대서사시 나무) 22:45 달라졌어요 23:35 시대공감 24:05 지식채널 e 24:10 EBS 특별기획 통찰 (왜 인문적 시선인가?)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9일(음 4월 3일 辛卯)
子	48년생 차후의 문제는 차치하고 당면 과제부터 해결하라. 60년생 새로운 희망을 안고 오는 이가 있을 것이다. 72년생 밝고 활기차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4년생 소극적이었던 불협화음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알라. 행운의 숫자 : 58, 70	42년생 헛수고와 끝 공산이 크다. 54년생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되면서 상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66년생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정확하다. 78년생 서연치 않다면 과감히 선회하는 것이 유익하다. 행운의 숫자 : 57, 35
丑	49년생 부수적인 일은 보류하고 주된 일을 도모해야 한다. 61년생 재물과 인연이 사방에 보이는 형상이다. 73년생 양면의 요소가 균형을 이루었을 때가 가장 이상적이다. 85년생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09, 68	43년생 허황된 것을 피해야 손실을 최소화한다. 55년생 작은 것을 얻으려다 큰 것을 잃을 수도 있음을 알라. 67년생 자주 접하면 익숙해진다. 79년생 구태의연함에 사로잡힌다면 진일보하기도 어려워진다. 행운의 숫자 : 15, 46
寅	50년생 유혹에 이끌리면 후회하게 된다. 62년생 보이지 않으면서도 작용하고 있는 것의 영향력이 대단하다. 74년생 투철한 소명의식과 사명감이 절실히 요청된다. 86년생 상대의 배려에 뜨겁게 감동받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31, 20	44년생 다방면으로 고려한 후에 진행하지 않는다면 손실을 본다. 56년생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는 낭패를 보게 될 것이다. 68년생 능률적인 계획에 참여할 기회가 생기는 동세이다. 80년생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행운의 숫자 : 47, 63
卯	51년생 가장 손쉬운 방법부터 적용하는 것이 옳다. 63년생 지나치면 부작용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75년생 새로운 문서나 뜻밖의 수입이 발생하리라. 87년생 형세에 지배받지 말고 주체적으로 운용하도록 하라. 행운의 숫자 : 42, 52	45년생 경쟁력을 강화시켜야만 밀려나지 않을 것이다. 57년생 순리에 벗어난다면 불행은 자초하리라. 69년생 적절한 인연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81년생 상대의 표정과 언행은 자신의 거울이리라. 행운의 숫자 : 38, 84
辰	40년생 정성을 다하면 길한 일로 연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52년생 매사가 상대적임을 알라. 64년생 서둘러서 좋은 일은 없느니라. 76년생 하등의 지장이 없었다. 88년생 열망 보아도 표가 나게 되어 있다. 행운의 숫자 : 22, 43	46년생 여유를 갖고 신중히 처리하라. 58년생 정도를 효율적으로 조절하지 않으면 헤이해질 수밖에 없다. 70년생 파격적인 제안이라면 조건부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82년생 마음을 비우고 대처했을 때 결과가 더 낫다. 행운의 숫자 : 49, 70
巳	41년생 진면모를 파악하게 되리라. 53년생 즉시 받아들여야 할 해아겠다. 65년생 전혀 다른 국면이다. 77년생 여파가 상당할 것이니 단단히 각오하고 임해야 한다. 89년생 버려던 일이 일사천리로 추진된다. 행운의 숫자 : 13, 05	47년생 조짐은 한 치의 오차도 없는 현상을 예견한 셈이다. 59년생 하나의 기쁨과 함께 또 다른 부담감도 생긴다. 71년생 상대의 속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 83년생 충동적이라면 무리한 판국을 조성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29, 88